글로벌 자동차업계 실적, 환율이 갈랐다

엔화·유로화 약세에 일본·독일차 웃고
원화·달러화 강세에 한국·미국차 울고

환율이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의 3분기 실적을 갈랐다. 일본차와 독일차는 웃었고, 한국차와 미국차는 울상을 지었다.

지난 1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3분기 실적이 발표된 글로벌 자동차기업 9개사의 실적을 종합한 결과 이들의 매출은 지난해 3분기보다 2.0%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36.6%나 늘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3분기 7.1%로 지난해보다 2.0%포인트 높아졌다.

이들 업체의 실적을 좌우한 것은 환율. 엔화와 유로화 약세는 곧 일본업체와 유럽업체의 경영실적 강세로 연결됐고 원화, 달러화 강세는 한국, 미국 업체들의 실적악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먼저 현대차와 기아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0%, 18.6%나 하락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업계 최상위급이던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도 지난해보다 1.9%포인트, 1.0%포인트 떨어진 7.7%, 5.0%에 그쳐 중간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 글로벌 자동차기업 9개사 3분기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기업명	통화	매출액	증감	영업이익	증감	영업이익률 증감
다임러	유로	33,122	10.0%	3,732	67.3%	3.9%p
닛산	엔	5,144,629	8.2%	261,944	18.0%	0.4%p
폴크스바겐	유로	48,910	4.1%	3,230	16.3%	0.7%p
도요타	엔	6,554,909	4.3%	659,218	11.3%	0.6%p
BMW	유로	19,600	4.5%	2,013	1.2%	-0.3%p
현대차	원	21,280,400	2.2%	1,648,700	-18.0%	-1.9%p
기아차	원	11,414,800	-1.9%	566,600	-18.6%	-1.0%p
포드	달러	34,900	-3.0%	1,181	-43.5%	-2.4%p
GM	달러	39,255	0.7%	1,227	-45.6%	-2.7%p
9개사 합계 (달러화 환산)		340,533	-2.0%	24,272	36.6%	7.1%

현대·기아차와 함께 미국차들도 성적이 좋지 않았다.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는 영업이익이 무려 43.5%, 45.6%나 떨어지며 영업이익률도 3.4%, 3.1%에 불과했다. 지난해 3분기엔 두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5.8%였다.

포드는 9월 에어백 결함으로 미국에서만 74만6842대의 차량을 리콜한 여파에다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내 수요 부진이 겹치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었다. GM은 3분기에 역대 최대 판매실적을 올렸지만 대규모 리콜 비용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급락했고 영업이익률 역시 9개사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처졌다.

반면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차들은 엔저를 등에 업고 판촉을 대거 강화함에 따라 수익률 면에서 상승세를 탔다. 도요타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11.3%에 달했고 닛산 역시 18.0%나 늘었다. 두 업체의 매출도 4.3%, 8.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10.1%, 5.1%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0.4%포인트 개선됐다.

독일차도 나쁘지 않았다. 다임러는 벤츠 판매의 확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0.0%, 67.3%나 늘어 영업이익률이 11.3%에 달했다.

이에 따라 다임러는 9개 업체 중 수익성이 가장 높았다. 폴크스바겐도 중국에서 판매호조와 유로화 약세 등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16.3% 늘어나며 영업이익률이 0.7%포인트 올라간 6.6%를 기록했다. BMW는 영업이익률이 0.3% 줄어들긴 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며 여전히 10%대 영업이익률(10.3%)을 올렸다.

/연합뉴스

닛산, 디젤 SUV '캐시카이' 출시

전기차 리프도 다음달 첫선

한국닛산이 닛산 브랜드의 첫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시카이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다음달에는 전기차 리프까지 선보이며 한국 시장 공략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

캐시카이는 2007년 처음 나와 현재까지 전세계 누적 판매 200만대를 넘긴 자동차로 올해 상반기에는 유럽 시장에서 SUV 판매 1위를 차지한 차종이다. 국내 출시된 캐시카이는 올해 초 유럽에서 새로 선보인 2세대 모델로 출시 직후 영국 왓카로부터 '올해의 차'로 선정됐고, 유로 엔캡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하는 등 디자인, 안전기술, 주행능력 3박자를 비교적 잘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 가격은 S급 3050만원, SL급 3390만원, 플래티넘급 3790만원으로 책정됐다. 현재까지 사전 계약 물량은 약 600대다. 이란의 유목민족 이름에서 따온 캐시카이는 1.6ℓ 4기통 디젤 엔진에 7단 매뉴얼 모드를 지원하는 엑스트로닉 무단 변속기를 맞물려 최고출력 131마력, 최대토크 32.6kg·m의 힘을 낸다. 낮은 rpm 영역에서부터 최대 토크를 발휘해 중·저속 구간이 많은 한국의 도심 환경에 적합하다고 한국닛산은 설명했다. 공인연비는 ℓ당 15.3㎞(도심 14.4㎞·고속도로 16.6㎞)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율 과다 … 합리적 조정 필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지적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자동차산업협회가 "현재의 수수료율은 과도하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6일 "현행 자동차 복합할부 수수료는 거래구조와 원가구조를 고려할 때 일반 카드거래와 같은 1.9%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자동차 복합할부는 일반 카드거래와 달리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 판매사로부터 받은 1.9%의 수수료율 가운데 1.37%를 캐피탈사에 넘겨주고, 캐피탈사가 이를 자사의 영업에 활용하기 때문에 자동차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캐피탈사의 영업비용을 지원해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카드 복합할부가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업계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판촉 재원과 기회를 상실하게 돼 결국 자동차 가격의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곧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동차업계는 2010년부터 4년간 카드복합할부 수수료로 1872억원을 부담했다. 협회는 최근 금융당국이 자동차 금융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캐피탈사 한 곳이 특정 자회사의 금융상품을 25% 이상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의 계열할부금융 이용 비중을 보면 BMW 79%, 폴크스바겐 70%, 닛산 68%, 혼다 66%, 도요타 63% 등이며, 현대차와 기아차는 63%와 49%다.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전 세계 자동차업체들이 계열 할부금융을 통해 자동차 판촉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금융정책 당국이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과도한 규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국내 완성차업체 5개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것은 현대차와 KB국민카드의 협상 마감 시한(1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대차에 힘을 실어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세계 정비사들 다모였네

기아자동차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천안 현대·기아차 천안 정비연수원에서 개최한 '제7회 전세계 정비사 경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다. 〈기아차 제공〉

연비, 시험차량 3대 평균값으로 검증

국토부, 허용 오차범위 5% 초과땐 3대 추가 측정

앞으로 자동차 연비 검증은 시험차량 3대의 연비를 측정하고 평균값이 허용오차범위(5%)를 초과하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같이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예고한 이후 자동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런 연비 조사 방식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는 다음 주에 공동고시를 공포할 예정이다.

자동차 연비조사는 올해부터 국토부가 총괄하고 있다. 애초 3개 부처가 행정예고한 안에는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해 차량 1대의 연비를 측정하고 허용오차범위를 넘으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해 2차 측정 때의 결과로 연비를 산정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1차 측정 때도 업체가 원하면 차량을 3대까지 테스트하도록 했다.

이제까지 국토부와 산업부는 각각 1대와 3대를 대상으로 연비를 조사해왔다. 공동 고시안에는 연비측정기관이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1차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으면 다른 기관에서 재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도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1차 조사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하고 2차 조사는 산업부 산하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맡도록 했다.

다만 2차 측정때도 주항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마찰을 수치화한 것)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측정한 수치를 사용한다. 2차 조사까지 했을 때는 1·2차 조사한 차량 연비의 평균값을 낸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신축원룸 매 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월수익500만
매가6억7천
(보4천,융자1억5천)
원룸전문취급
원룸물건 다량있음
(금액 4억~12억)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1.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사우나
대지 96평/건평 570평
월수익 98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2,000만 수익 발생(1년2억 4천)
매가 13억(보 2억, 융 5억)
2.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건평500평
월 수익 900만, 매가 10억
3. 북구 오룡동 8층 건물
1층 상가, 삼성전자 앞
보 2억, 융 15억 오피스텔 58개
월 수익 3,000만, 매가 35억
4. 북구 상가건물 3층
토지 160평/건물 200평
월 수익 1,200만, 매가 21억
5. 수완지구 상가건물 4층
(우미아파트 밀집)
월 수익 900만, 매가 17억
(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영산중고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융 1억
매가 3억2천
할인 → 2억8천

목 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할인 → 2억8천
010-6832-9700

경매 무료 교육
운암챔피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반
이제 경매가 대중화 새대
교육화 실전가능
010-6832-9700
062)513-4900

경매 무료 교육
상무지구 12월 1일
12월 1일 오픈(상무지구)
기본반
고급반
실전반
010-6670-9800
062)382-5500

오피스텔 매 매
(수익상가)
1.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8평
올 리모델링 완비
천변쪽 방향 전망 좋음.
즉시 입주 가, 임대 가
보 1천, 월 70만 (융 5천)
48평 매가 1억 5천
할인 → 1억1천
2.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15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 완료
보 300만, 월 33만
(융 1,300만)
15평 매가 5,000만
3. 쌍촌동 원룸
운천역 1분
매가 3500만
4.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정연 오피스텔 3층 32평
매가 1억1천만
(보1천, 월70만, 융5천만)
062)527-7600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780㎡,건 1992㎡)
감정가 24억 최저가 13억
· 광주 서구 화정동 (토지 171㎡,건 501㎡)
감정가 27억 최저가 19억
· 광주 서구 화정동 (토지 372㎡,건 1255㎡)
감정가 10억 최저가 5억7천
· 광주 동구 동명동 (토지 838㎡,건 2190㎡)
감정가 17억 최저가 11억
· 광주 서구 치평동 (토지 1599㎡,건 17380㎡)
감정가 223억 최저가 156억
· 광주 남구 주월동 (토지 236㎡,건 594㎡)
감정가 4억5천 최저가 4억5천
토 지
·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지3974㎡)
감정가 45억 / 최저가 25억
(상업지역, 최고위치,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적합)
· 광주 북구 매곡동 (토지 579㎡)
감정가 1억 / 최저가 5천 800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자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952-5584